

비동거 자녀가구의 부모가구로의 소득 이전 동기 분석

설귀환* · 임병인**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7차 자료를 활용하여 비동거 자녀가구의 부모가구에 대한 소득 이전 행태를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모형에 근거하여 실증한다. 주요 분석 결과들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구가 더 많은 소득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타적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실증되었다. 특히, 부모가구 소득 분위별 하위 표본에서 소득이 높은 집단의 해당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타적 동기모형이 예측하는 결과가 명백히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가구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가구의 소득 이전이 많아져 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한 교환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 수별 하위 표본을 통하여 자녀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 사적 이전을 통한 경합 행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넷째, 손자를 돌보고 있는 부모가구에 소득을 더 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환적인 동기가 실증되었다. 이상에서 부모가구와 자녀가구 간 소득 이전 행동에서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자산과 자녀 수를 반영한 추정 결과에 근거하면 두 동기 중 교환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교환적 동기, 이타적 동기, 소득 이전, 상속과 증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C2, D1, D3, I3

* 제1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화: (044) 415-5285, E-mail: ghseol@krivet.re.kr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전화: (043) 261-2216, E-mail: bilforest@gmail.com
논문투고일: 2020. 6. 11 수정일: 2020. 6. 29 게재확정일: 2020. 6. 30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가구의 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4인가구가 표준이던 것이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평균 가구원 수가 2.47명으로 처음으로 2.5명 밑으로 떨어져 3인 가구가 표준가구라고 말하기도 어색한 상황이다. 또한 1인 가구 수가 5,619,000가구로 2016년 대비 221,000가구(4.1%) 증가하였고, 이미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은 1인 가구로 바뀌었다. 2005년에는 4인 가구(27.0%), 2010년에는 2인 가구(24.3%)가 가장 많은 유형이었는데, 2017년에는 1인 가구(28.6%)로 바뀌었고, 특히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70세 이상(18.0%), 30대(17.2%) 순이었다. 이상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고령인구들이 1, 2인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부양의식이 크게 변화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부양의식 변화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행한 「2018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제시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해 본다. 2018년 기준으로 부모 부양은 13세 이상 인구 중에서 48.3%가 가족과 정부·사회, 26.7%가 가족, 19.4%가 부모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 중 2010년과 2016년 수치를 제시해 보면, 부모 스스로가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12.7%에서 18.6%, 정부·사회의 책임은 3.9%에서 5.1%로 증가하였고, 가족책임이라는 응답은 36.0%에서 30.8%로 줄었다.¹⁾

또한 부모 생활비의 주 제공자도 2018년 기준으로 ‘스스로 해결’이 55.5%로 가장 높았고, ‘모든 자녀’라는 비율은 27.2%, ‘장남 또는 맏며느리만’ 생활비를 내는 비율은 7.5%에 그쳤다.²⁾ 이 통계에서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비중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와 ‘기타’를 제외하면, 결국 자녀들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

1) 2012년과 2014년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부모 스스로가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13.9%, 16.6%, ‘정부·사회책임’ 4.2%, 4.4%, ‘가족책임’ 33.0%, 31.7%였다.

2) 이 항목에 대한 비중을 2006년 이후 2016년까지를 2년 단위로 제시해 보면, ‘스스로 해결’은 44.8%, 46.6%, 48.0%, 48.9%, 50.2%, 52.6%, ‘모든 자녀’는 24.8%, 25.9%, 26.1%, 27.6%, 27.7%, 27.5%, ‘장남 또는 맏며느리’라는 응답 비율은 15.6%, 14.6%, 12.4%, 11.2%, 10.1%, 8.8%였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를 2002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단위로 살펴보면 54.7%, 52.9%, 51.7%, 50.7%, 50.5%, 47.3%, 44.4%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비중 통계로는 자녀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주 생활비를 제공하는 자녀가구들의 소득 이전 행위 저변에 있는 동기를 파악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구 간 또는 가구 내 소득 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모형과 교환적 동기(exchange motive)모형을 논의해 본다. 이타적 동기모형에 따르면, 자녀가구의 소득이 높고 노인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자녀가구가 노인가구로 더 많은 소득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 이전의 주체가 이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환적 동기모형에 따르면, 자녀가구에게 손자녀 돌봄, 집보기, 가사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가구에 더 많은 소득을 이전하거나, 미래에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재산이 많으면 미리 소득을 더 많이 이전하고,³⁾ 과거에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투자를 많이 했다면⁴⁾ 자녀가구가 노인가구에 소득을 더 많이 이전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을 이전해 주는 가구가 보상(reward)을 바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의 4~7차 자료로써 우리나라에서 두 동기 중 어느 동기에 의해 가구 간 소득 이전이 이루어지고, 어떤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일까에 초점을 맞추어 가구 간 소득 이전의 동기 관련 연구들의 지평을 넓히고자 비동거 자녀가구의 부모가구로의 소득 이전 양태를 실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⁵⁾

3) Bernheim, Shleifer, and Summers(1985)는 “전략적 유산 동기”(strategic bequest motive)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유산 분배를 통해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많은 노인이 더 많은 소득을 이전받는다는 것이다.

4) 이는 Lillard and Willis(1997, p. 116)가 세운 “부모상환가설”(parental repayment hypothesis)과 관련이 깊다. 이 가설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를 둔 부모가구가 더 많은 이전소득을 받는다는 것이어서 자녀의 사교육비에 적극 투자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 비교적 잘 들어맞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자녀가 자신의 교육을 위해 부모로부터 암묵적인 형태의 대출을 받은 후 부모 노후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갚는다는 것이다.

5) 참고로 황남희(2015, p. 7)는 “교환적 동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연구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약화되면서 이타적 동기에서 교환적 동기로 이행하고 있고, 미시 자료로 살펴본 우리나라 초기 연구들은 이타적 동기모형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더 잘 설명하였지만(손병돈, 1998; 김희삼, 2008), 최근으로 올수록 이타적 동기가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다”(전승훈·박승준, 2011)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II절에서 유사한 국내외 연구들을 일별한다. III절에서는 사용 자료, 분석 대상을 논의한 뒤 이론 모형을 상술하면서 회귀추정모형을 도출한다. IV절에서는 자녀가구의 부모가구로의 사적 이전 소득과 방문 빈도에 대한 영향, 자녀 수가 사적 이전 소득과 방문 빈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득 및 자산수준별 소득 및 자산이 사적 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분석한다. V절에서는 분석 결과들을 요약한 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기존 연구

가구 간(또는 가구 내) 소득 이전 동기에 관해서는 많은 국내외 연구가 있다. 최초로 이를 논의한 Becker(1974)를 비롯하여 Schoeni(1997), Foster and Rosenzweig(2001), Cox and Fafchamps(2008), 김희삼(2008) 등은 이타적 동기모형, Cox(1987), Lee, Parish, and Willis(1994), Lillard and Willis(1997), 손병돈(1998), Xie and Zhu(2009), 김희삼(2014) 등은 교환적 동기모형⁶⁾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한다.⁷⁾

먼저 이타적 동기를 논의한 몇몇 연구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Schoeni(1997)은 미국 PSID 자료를 이용하여 더 가난한 가구들이 이전소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 이유를 이타적 동기모형으로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Foster and Rosenzweig(2001)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간 소득 이전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Cox and Fafchamps(2008, p. 3721)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 소득 이전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소득을 받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사적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커야 함을 보였다.

김희삼(2008, pp. 89, 99)은 근로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많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더 적은 사적 이전을 받고, 자녀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더 많은 사적 이전을 제공한다는 추정 결과를 보였다.⁸⁾

6) 이 밖에도 Bernheim, Shleifer, and Summers(1985), Cox and Rank(1992), Cox, Eser, and Jimenez(1998) 등이 있다.

7) 참고로 이원진(2018)은 미국에서는 대체로 교환적 동기를 지지하고 이타적 동기를 기각하는 연구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8) 이와 유사한 연구로 고선강(2012), 신혜리·남승희·이다미(2014) 등이 있다.

다음은 교환적 동기를 논의하거나 실증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Cox(1987, pp. 510~511)는 교환적 동기에 근거하여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적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Lee, Parish, and Willis(1994, pp. 1032~1033), Lillard and Willis(1997, p. 127), Xie and Zhu(2009, p. 182) 등은 교환적 동기에 근거하여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받은 자녀가 더 많은 사적 이전을 제공함을 보였다.

손병돈(1998, p. 14)은 교환적 동기에 근거하여 가구 내 소득 이전 과정에서 소득을 이전해 주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가구 구성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이 이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희삼(2014)은 손자녀 돌봄이나 가사 지원과 같이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녀가구들의 사적 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한편, 본 연구가 비동거 자녀가구와 노인가구 간의 소득 이전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부모와 자녀의 동거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들도 살펴본다. 이타적 동기모형에 따르면, 부모의 효용이 증가하면 자신의 효용도 증가하는 이타적인 선호를 가지므로 부모 또는 자녀가 동거를 통해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동거하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경제력이 낮은 부모와 자녀가 동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Won and Lee, 1999, p. 317; 박현정·최혜경, 2001; 유성호, 1996, 2000; 윤현숙·윤지영·김영자, 2012 등을 참조).⁹⁾

교환적 동기모형에 따르면, 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대가, 과거 부모의 교육투자에 대한 보답,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기대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경혜·이정화(2001, p. 132)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자녀가구의 가사 지원 필요성이 커져 자녀가 동거하는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였다.

김현식·황선재(2013, p. 77)는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물려줄 자산이 많은 부모와 자녀가 동거할

9) 이에 따르면 공적 이전소득이 부모와 자녀의 동거 가능성을 줄일 것이다(Engelhardt, Gruber, and Perry, 2005). 같은 맥락에서 정경희(2002, pp. 34~35)는 1, 2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독거생활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공적 연금 확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오지연·최옥금(2011)도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이면서 또한 노인이 건강할수록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자녀가구와 분가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첫째, 가구 간 소득 이전 행위에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모두 작용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점, 둘째 노인가구들이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손자녀 돌봄 서비스와 노인가구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교환적 동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셋째 자녀 간의 경쟁이 존재함을 도출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자녀 1명과 2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Ⅲ. 사용 자료, 분석 대상과 이론적 접근

1. 사용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전국의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활동, 중고령자의 고용 현황과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어 7차에 걸친 패널 자료이다. 이하에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조사대상자, 조사방법, 표본추출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전국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가구, 개인, 그리고 50세 이상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는 연령과 무관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된다.

둘째, 조사방법은 격년주기로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사이에는 부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도 약 5개월 동안 실사를 진행한다. 전문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 및 개인을 직접 방문하여 인쇄된 설문지에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면접타

계방식(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PAPI)으로 조사한다.

셋째, 표본추출과 관련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전국의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일반 가구이다. 최초 구축된 원 표본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섬조사구와 시설단위조사구를 제외한 24,995개의 일반조사구(1,420,299가구)를 부차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이후 다량의 아파트가 신축되었고, 이들 아파트 입주자의 대부분은 기존 조사구에서 전출하여 신규아파트로 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축아파트 리스트를 별도의 조사구로 포함하여, 조사시점인 2005년에 보다 가까운 표본으로 보정하였다. 최초 조사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패널의 최저연령이 상승하여 50대의 공백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2013년 5차 본 조사에서는 50~57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1,201가구를 표본에 추가하여 통합 표본을 구축하였다.

위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조사된 가구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¹⁰⁾ 2005년(1차 조사) 5,109가구, 2007년 4,590가구, 2009년 4,308가구, 2011년 4,105가구, 2013년 3,809가구, 2015년 3,736가구, 2017년(7차 조사) 3,570가구 등이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노인가구와 자녀가구 간 소득 이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4~7차 조사 자료 중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노인 1인 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연도를 pooling해서 활용하며, 금액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화를 적용하여 2015년 기준 물가로 변환하여 활용한다.

주요 변수에 결측이 있는 관측치를 제거한 노인 1인 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연도별 표본 수는 <표 1>과 같다. 전체 7,198개 관측치는 연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노인 1인 가구는 전체의 약 38.4%인 2,763가구, 노인부부가구는 전체 표본의 약 61.6%인 4,435가구이며, 1인 가구-부부가구의 구성비는 조사시점과 관계없이 일관된 수준을 보인다.

10) 2005년에 시작된 패널 자료(05패널)를 기준으로 살펴본다(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유저가이드 Ver.7.0).

<표 1> 분석 표본

(단위: 가구)

구분	노인 1인 가구	노인부부가구	전체
4차 조사(2011년)	658(38.3%)	1,060(61.7%)	1,718(100.0%)
5차 조사(2013년)	682(37.2%)	1,149(62.8%)	1,831(100.0%)
6차 조사(2015년)	715(38.7%)	1,133(61.3%)	1,848(100.0%)
7차 조사(2017년)	708(39.3%)	1,093(60.7%)	1,801(100.0%)
합계	2,763(38.4%)	4,435(61.6%)	7,198(100.0%)

분석의 핵심이 되는 노인가구-자녀가구 간 소득 이전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가구의 사적 이전 소득과 사적 이전 지출 대상을 식별하여 비동거 자녀가구와의 소득 이전액만을 추출하여 연구의 주요 변수로 설정한다.

3. 추정모형 도출

추정모형 도출을 위해 Cox의 2인 모형을 응용하여 논의한다.¹¹⁾ 먼저 비동거 자녀가구의 효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U = U(C_c, V(C_p))$$

여기서, C_c : 자녀가구의 소비

C_p : 부모가구의 소비

$V(\cdot)$: 부모가구의 효용함수

각 효용함수는 일반적인 효용함수의 특성을 따르고,¹²⁾ 자녀가구 효용은 부모가구의 효용이 증가 시 증가한다($\partial U/\partial V > 0$). 이때 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예산제약식은 자녀가구의 부모가구로의 사적 이전액(T), 자녀가구의 소득(Y_c), 부모가구의 소득(Y_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1) 이론모형은 Kananurak and Sirisankanan(2016, pp. 33~34)을 참고하였다.

12) $\partial U/\partial C_c > 0$, $(\partial U/\partial C_c)/\partial C_c < 0$, $\partial V/\partial C_p > 0$, $(\partial V/\partial C_p)/\partial C_p < 0$.

$$Y_c - T = C_c$$

$$Y_p + T = C_p \text{ (단, } T \geq 0)$$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분리 가능한 로그 효용함수(separable logarithmic utility function)를 따르고, 자녀가구의 이타적 심리의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 λ (단, $0 < \lambda < 1$)를 삽입하면, 자녀가구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ax_T U = \ln(C_c) + \lambda \ln(C_p)$$

$$s.t. \quad Y_c - T = C_c$$

$$Y_p + T = C_p$$

자녀가구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면, 최적 사적 이전액을 달성하는 경우, $C_p = \lambda C_c$ 가 성립한다. 즉, 부모의 소비가 자녀가구 소비의 일정 수준(λ , 자녀가구의 이타적 심리 정도)만큼 증가할 때까지 자녀가구는 부모가구에 소득을 이전한다. 최적 사적 이전액의 T^* 를 구하면, 내부해(interior solution)를 가지는 경우(부모가구의 소득이 자녀가구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T^* 는 $\frac{\lambda}{1+\lambda} Y_c - \frac{1}{1+\lambda} Y_p$ 의 값을 가지게 되고, 모서리해(corner solution)를 가지는 경우(부모가구의 소득이 자녀가구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T^* 는 0의 값을 가진다.

전술한 이타적 자녀가구의 효용극대화 문제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녀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사적 이전액은 증가한다($\partial T^* / \partial Y_c = \lambda / (1 + \lambda) > 0$). 둘째, 부모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사적 이전액은 감소한다($\partial T^* / \partial Y_p = -1 / (1 + \lambda) < 0$). 셋째, 부모가구의 소득이 자녀가구의 소득에 비해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면 사적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 이전액이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때 부모가구가 자산을 소비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¹³⁾ 자산은 소득과 같이 사적 이전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소득과 동일한 방향으로 사적 이전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부모가구의 자산

13) 생애에 걸친 소비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추구하는 합리적 가구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행위이다.

증가 시 사적 이전액은 감소하고 부모의 자산이 충분히 많은 경우, 자산은 사적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이타적 자녀가구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자녀가구 간의 사적 이전의 순서, 자녀가구 간 정보의 차이 등의 가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¹⁴⁾ 이타적 사적 이전의 핵심은 부모가구의 소비가 자녀가구 소비의 일정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소비를 증가시켜 줄 상대방이 있는 경우 자녀 1가구당 최적 사적 이전액 수준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낮거나 같게 된다.

교환적 동기모형에 따르면, 자녀가구는 부모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부모가구에 소득을 이전한다. 대표적인 교환적 동기에 의한 사적 이전은 부모가 손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가구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한편, 자녀가 미래에 부모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고자 하는 동기로 부모가구의 현재 소비를 보전해 주는 행위도 교환적 동기에 의한 사적 이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자산이 많은 경우 자녀가구는 미래의 증여 또는 상속을 기대하고 부모가구로의 소득 이전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다. 이는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사적 이전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타적 동기모형의 예측과 반대의 결과이다.

교환적 동기모형에서도 둘 이상의 자녀가구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자녀가구는 부모의 상속 또는 증여 선호(preference)를 다른 자녀가구에 비하여 높이기 위하여 부모에게 더 많은 사적 이전을 할 유인이 있다. 다시 말하여, 미래의 상속 또는 증여를 위하여 자녀가구 간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의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은 경쟁 가구가 없는 경우보다 많은 사적 이전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 역시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자녀가구 1인당 사적 이전액의 크기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타적 동기모형의 예측과 반대의 결과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구축한 본 연구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T_i = \alpha + \beta Y_i + \gamma A_i + \delta N_i + \zeta' X_i + u_i$$

이때 T_i 는 노인가구 i 가 자녀가구 1가구당 받는 평균 사적 이전액 또는 자녀가구의 부모가구 방문 횟수, Y_i , A_i , N_i 는 각각 노인가구 i 의 소득, 자산, 자녀수를 의미한다.¹⁵⁾ X_i 는 사적 이전액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구성

14)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Laferrère and Wolff(2014)를 참조.

15) 이타적 동기모형에서 사적 이전의 주요 결정요인인 자녀가구의 소득수준은 「국민노후보장

된 벡터로 의료비 지출액, 부부가구 여부, 거주지역, 연령, 손자 돌봄 여부를 포함한다. 의료비 지출액의 삽입으로 갑작스런 지출에 따른 소득 이전 증가를 통제하고자 하며, 거주지역 및 부부가구 여부를 반영하여 지역별 물가 차이¹⁶⁾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소비수준 차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u_i 는 일반적인 오차항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검토에 따라 이타적 동기모형과 교환적 동기모형이 예측하는 추정계수의 부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각 모형이 예측하는 추정계수의 부호

설명변수	이타적 동기	교환적 동기
부모가구 소득	$\beta < 0$ (단, 부모가구의 소득이 충분히 높은 경우, $\beta = 0$)	-
부모가구 자산	$\gamma < 0$ (단, 부모가구의 자산이 충분히 많은 경우, $\gamma = 0$)	$\gamma > 0$
자녀 수	$\delta < 0$	$\delta > 0$

IV. 추정 결과

이제 앞서 제시한 추정모형의 추정 결과를 논의한다(<표 3> 참조). 자녀가구의 부모가구로의 소득 이전은 첫째, 소득변수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노인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구가 부모에게 소득을 더 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이타적 동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산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부호가 양(+)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가구가 더 많이 소득을 부모에게 이전한다고

패널조사」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아,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자녀가구가 부모가구에 제공하는 서비스인 부모가구 방문 횟수를 종속변수로 설명한 추정모형을 추가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16) 서울, 광역시, 도 지역 순으로 접근이 용이하므로 부모가구 방문 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추정모형에서는 부모가구 방문의 비용(시간 또는 노력)이 포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향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가능성을 대비한 교환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보다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 자녀가구의 부모가구로의 사적 이전·방문 빈도 추정 결과

구분	종속변수: 자녀가구의 사전 이전액	종속변수: 자녀가구의 방문 횟수
소득	-0.369*** (0.021)	0.459 (0.314)
자산	0.491*** (0.067)	3.152** (1.357)
의료비 지출	0.038 (0.046)	1.246 (0.802)
부부가구	0.073 (0.059)	-1.729** (0.869)
지역(기준=서울)		
광역시	0.190 (0.175)	-8.185*** (1.303)
도 지역	-0.131* (0.068)	-9.692*** (1.173)
자녀 수	0.142*** (0.019)	-1.719*** (0.277)
연령	0.018*** (0.003)	0.024 (0.059)
손자 돌봄	1.574*** (0.139)	63.490*** (3.212)
상수항	0.301 (0.217)	29.900*** (4.427)
<i>N</i>	7,198	7,198
<i>R</i> ²	0.115	0.080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p < 0.01$, ** $p < 0.05$, * $p < 0.10$.

셋째, 다른 변수들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추가로 논의한다. 노인가구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구가 소득 이전을 더 많이 하고, 지역 변수의 경우 서울 거주 노인가구에 비하여 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사적 이전액이 작아 지역별 물가에 따른 소비수준 차이가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모에 이전하는 소득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녀 간의 경합에서 발생하는 교환적 동기의 예측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넷째, 눈에 띄는 결과는 손자를 돌보고 있는 노인가구에게 사적 이전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환적인 동기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Lee, Parish, and Willis, 1994; Lillard and Willis, 1997; Xie and Zhu, 2009; 김희삼, 2014). 이상의 추정 결과에서 부모가구와 자녀가구 간 소득 이전 행동에서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두 모형이 예측하는 방향이 반대인 자산과 자녀 수의 경우 교환적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자녀가구의 소득이 관측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추가한 종속변수를 자녀의 방문 횟수로 설정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과 독립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부합하여 부모가구 소득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산과 손자 돌봄의 영향은 사적 이전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방문이 늘어나 부모의 건강 상태에 따른 방문 유인의 차이가 드러나며,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면 타 지역에 거주할 때보다 자녀의 방문이 증가하여 접근 가능성에 따른 방문 횟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자녀 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보다 작아 사적 이전액 추정 결과와는 반대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자녀 수의 영향을 선형적(linear)으로 가정한 모형에서는 자녀 간 상속 또는 증여를 위한 경합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므로, 하단에서 자녀가 1인으로 경합 상대가 없는 경우와 2인 이상으로 상대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면밀히 검토해 본다.

상속이나 증여를 위한 자녀가구 간 경합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쟁 상대가 없어 경합이 발생할 수 없는 자녀가 1인 가구와 경합이 발생 가능한 자녀 2인 이상 가구로 표본을 구분하고 각 부분표본(subsample)에서의 추정 결과를 논의한다. <표 4>는 노인가구의 자녀 수별 부분표본에 대한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다른 변수와는 달리 노인가구의 자산의 추정계수가 자녀 수에 따라(자녀가구의 경합 상대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방문 횟수의 경우 자녀 1인 가구 표본에서는 부모가구 자산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지만, 자녀 2인 이상 노인가구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교환적 동기에 기반한 사적 소득의 이전 행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상속이나 증여를 위한 자녀 간 경쟁이 실제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다.

부모가구의 자산 또는 소득이 충분히 큰 경우에 자산 또는 소득이 사적 이전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타적 동기모형이 예측하는 결과가 일치하는가를 회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5>는 노인가구 소득 및 자산 4분위별로 부분표본을 구성하고, 각 분위별 하위 표본에서 추정모형을 추정한 소득 및 자산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 분위별 소득이 사적 이전액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이 나타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추정계수의 절댓값이 감소하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줄어든다.

이는 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이 충분히 높으면 자녀가구의 최적 소득 이전액이 0으로 결정되어 부모가구의 소득이 사적 이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타적 동기모형의 예측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4> 자녀 수에 따른 사적 이전·방문 빈도 추정 결과

구분	종속변수: 자녀가구의 사적 이전액		종속변수: 자녀가구의 방문 횟수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소득	-0.239*** (0.039)	-0.344*** (0.019)	0.389 (0.321)	0.486 (1.207)
자산	0.451*** (0.098)	1.327*** (0.274)	2.024 (1.344)	21.260*** (7.375)
의료비 지출	-0.067 (0.071)	0.079 (0.064)	1.566* (0.870)	-0.041 (2.217)
부부가구	-0.326 (0.197)	-0.150 (0.108)	-1.247 (0.890)	-6.344* (3.415)
지역(기준=서울)				
광역시	0.525*** (0.192)	0.138 (0.087)	-8.817*** (1.344)	-2.225 (4.679)
도 지역	0.315* (0.186)	-0.188*** (0.073)	-9.930*** (1.210)	-7.066* (4.179)
연령	-0.012* (0.007)	0.024*** (0.004)	0.054 (0.061)	-0.109 (0.196)
손자 돌봄	7.432*** (0.730)	1.478*** (0.245)	62.320*** (3.153)	89.800*** (20.240)
상수항	1.936*** (0.487)	0.131 (0.350)	28.740*** (4.601)	32.900** (15.260)
<i>N</i>	780	6,418	780	6,418
<i>R</i> ²	0.116	0.138	0.052	0.088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 $p < 0.01$, ** $p < 0.05$, * $p < 0.10$.

노인가구의 자산 분포별 자산이 사적 이전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추정계수는 자산이 적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보다 큰 반면, 자산이 많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자산에 대한 이타적 동기보다는 교환적 동기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자산이 적은 노인가구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한 자녀가구가 사적 이전을 자산에 따라 변화시켜 교환적 동기를 드러내지만, 자산이 충분히 많은 노인가구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자산이 충분히 많은 경우 금전적인 이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기대를 높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표 5>의 추정 결과로는 명확히 밝힐 수 없다.

<표 5> 소득 및 자산 수준별 소득 및 자산이 사적 이전에 미치는 영향

	소득 1분위 하위 표본	소득 2분위 하위 표본	소득 3분위 하위 표본	소득 4분위 하위 표본
노인가구 소득의 추정계수	-0.558*** (0.045)	-0.448*** (0.118)	-0.459** (0.229)	-0.181 (0.141)
<i>N</i>	1,801	1,806	1,800	1,791
<i>R</i> ²	0.141	0.119	0.118	0.101
	자산 1분위 하위 표본	자산 2분위 하위 표본	자산 3분위 하위 표본	자산 4분위 하위 표본
노인가구 자산의 추정계수	5.618** (2.665)	4.429** (1.806)	1.611 (1.327)	0.042 (0.100)
<i>N</i>	1,808	1,800	1,792	1,798
<i>R</i> ²	0.131	0.124	0.089	0.098

-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p*<0.01, ***p*<0.05, **p*<0.10.
 3) 다른 통제변수(의료비 지출, 부부가구 여부, 거주지역, 연령, 자녀 수, 손자 돌봄 여부)가 통제된 결과임.

V. 요약 및 시사점 논의

지금까지 4~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로써 노인가구(부모가구)와 비동거 자녀가구 간에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실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추정 결과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구가 부모에게 소득을 더 많이 이전하여 이타적 동기에 의한 사적 소득 이전 행위를 확인하였다. 특히, 부모가구 소득 분위

별 분석에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소득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타적 동기모형의 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자산의 추정계수가 유의하게 0보다 커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한 교환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산 분위가 낮은 집단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다. 셋째, 상속이나 증여를 위한 자녀가구 간 경합 행위가 있으면, 경합 대상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산이 사적 소득의 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추정되었다.¹⁷⁾ 마지막으로, 손자 돌봄 변수가 예상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확실하게 이전소득을 증가시키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서 가시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교환적 동기의 사적 이전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¹⁸⁾ 넷째, 손자를 돌보고 있는 노인가구에 사적 이전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환적 동기가 실증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부모가구와 자녀가구 간 소득 이전 행동에서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자산과 자녀 수를 반영한 추정 결과에 근거하면 교환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 소득 결정에서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동시에 존재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이타적 동기모형의 모서리해에서 착안한 소득 분위별 하위 표본과 자녀 수에 따른 사적 이전 결정은 관련 주제의 향후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고선강,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 회지』 제16권 제2호, 2012, 103~121.
- 김현식·황선재, “자녀동거가 유산상속 선호형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성별 효과에 관한 중단적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4호, 2013, 72~104.
- 김희삼, “사적소득 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

17) 이 같은 자녀가구 간 상속이나 증여를 위한 경합의 존재를 실증한 것은 다른 논문에서 시도해 보지 않은 분석으로 향후 연구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 참고로 이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로 서초구청이 있다. 손주돌봄지원사업으로 한 자녀 이상 가정에 월 24만 원 손주돌봄비 수당을 지원한다(6/9/12개월 차등 지원). 다만, 조부모도 신청 당시 서초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거주기간 무관).

- 102호), 2008, 71~130.
- _____,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정책연구시리즈 2014-02), 한국개발연구원, 2014.
- 박현정 · 최혜경,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의 노후 부양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1, 63~75.
- 손병돈, “가족간 소득 이전의 결정요인: 부모와 기혼자녀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신혜리 · 남승희 · 이다미, “노인가구의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1호, 2014, 117~138.
- 오지연 · 최옥금, “노인가구 유형 변화와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3권, 2011, 7~28.
- 유성호,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제16권 제1호, 1996, 51~68.
- _____,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II,” 『노인복지연구』 제8권, 2000, 169~185.
- 윤현숙 · 윤지영 · 김영자,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1호, 2012, 249~271.
- 이원진, “노인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부양 추이의 영향요인-동거와 사적 이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전승훈 · 박승준,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2011, 171~205.
- 정경희,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02년 6월호, 2002, 29~40.
- 한경혜 · 이정화, “부양의식, 형제자매 지원과 노부모 동거에 대한 혜택비용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1호, 2001, 130~143.
- 황남희, “인구고령화와 공·사적 이전의 역할변화,” 『보건·복지 Issue&Focus』 제287호(2015-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Becker, G. S.,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1974, 1095~1117.
- Bernheim, B. D., A. Shleifer, and L. H. Summers, “The Strategic Bequest

-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3, No. 6, 1985, 1045~1076.
- Cox, D.,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5, No. 3, 1987, 508~546.
- Cox, D., Z. Eser, and E. Jimenez, “Motives for Private Transfers over the Life Cycle: An Analytical Framework and Evidence for Peru,”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5, 1998, 57~80.
- Cox, D. and M. Fafchamps, “Extended Family and Kinship Networks: Economic Insights and Evolutionary Directions,” In T. P. Schultz and J. Strauss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ume 4, Amsterdam: Elsevier North Holland, 2008, 3711~3784.
- Cox, D. and M. R. Rank,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4, No. 2, 1992, 305~314.
- Engelhardt, G. V., J. Gruber, and C. D. Perry, “Social Security and Elderly Living Arrangements: Evidence from the Social Security Notch,”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40, No. 2, 2005, 354~372.
- Foster, A. and M. Rosenzweig, “Imperfect Commitment, Altruism, and the Family: Evidence from Transfer Behavior in Low-Income Rural Area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3, No. 3, August 2001, 389~407.
- Laferrère, A. and F. C. Wolff, “Microeconomic Models of Family Transfer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Giving, Altruism and Reciprocity*, 2, 2006, 889~969.
- Lee, Y.-J., W. L. Parish, and R. J. Willis, Sons, “Daughter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Taiw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9, No. 4, 1994, 1010~1041.
- Lillard, L. A. and R. J. Willis, “Motives for Intergenerational Transfers: Evidence from Malaysia,” *Demography*, Vol. 34, No. 1, 1997, 115~134.
- Kananurak, P. and A. Sirisankanan, “Do Public Transfers Crowd-out Private Transfers? Evidence from the Thai Socio-Economic Panel Study,” *Applied Economics Journal*, Vol. 23, No. 2, Center for Applied Economics Research, 2016, 29~47.

- Schoeni, R. F., "Private Intrahousehold Transfers of Money and Time: New Empirical Evidenc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43, 1997, 423~464.
- Won, Y.-H. and G. R. Lee,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in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30, No. 2, 1999, 315~328.
- Xie, Y. and H. Zhu, "Do Sons or Daughters Give more Money to Parents in Urban Chin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71, 2009, 174~186.

[Abstract]

An Analysis on Motive of Income Transfer from Non-cohabiting Children's Household to Their Parents' Household

Gwi Hwan Seol* · Byung In Lim**

This study estimates the behaviors of transferring income between the elderly households (hereafter, EHs) and non-cohabiting children's households(hereafter, NCHs) on the basis of altruistic motives and exchange motives, using the 4th~7th wave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the income the EHs have, the more NCHs transfer income to EHs, implying an altruistic motive in the household works. In particular, estimates in the sub-sample by income quintile of the parent household show that a coefficient of the high-income group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vealing the result predicted by the altruistic motivation model. Second, the more the parent household's wealth are, the more the children's household's income is transferred, implying that an exchange motive gets stronger than the altruistic motive, because the NCHs is expecting the inheritance or gift of the asset for that. Third, the estimation of sub-sample by the number of children shows that the children compete for an inheritance or an bequest through the private transfer. Fourth, exchange motives are verified to show more income to parents who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These tell us that both altruistic motives and exchange motives are presented in the income transfer behavior between EHs' and NCHs' households, but estimation results from assets and the number of children suggest that exchange motives should be stronger.

* First Autho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el: +82-44-415-5285, E-mail: ghseol@krivet.re.kr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el: +82-43-261-2216, E-mail: bilforest@gmail.com

Keywords: altruistic motive, exchange motive, income transfer, bequest and inheritanc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JEL Classification: C2, D1, D3, I3

